

기계에 대한 정열, 포장기계 장인 인정받아 고밀도 분체충전탈기 장치 개발, 경쟁력 제고



변 호 연

세진테크(주) 생산기술 이사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계 개발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좋은 근로 환경을 만들어 주신 사장님 이하 직원 모두와 함께 수상의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자동포장기, 자동계량기 전문 생산 업체인 세진테크(주)는 변호연 생산기술 이사가 제6회 포장기계대상 기술개발부문 중기청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1992년 세진테크(주)에 입사한 변호연 이사는 산업용 자동계량기를 개발, 생산하게 된다. 이후 전자동 미곡계량소포장기를 개발, 전국농협과 미곡종합처리장에 공급했다. 전자동미곡계량소포장기는 1996년 6월 EM마트를 획득, 품질의 신뢰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150여대를 판매해 국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완제품으로 미국, 오스트리아,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뿐만 아니라 1996년부터는 세계적인 포장기 메이커인 일본 동양자동기와 기술 제휴, 식품자동포장기인 로타리 파우치 포장기, 레토르트 포장기를 개발했다.

현재 식품용 분체 충전기의 경우 외국회사에서는 충전시 분말의 밀도를 높여 포장 부피를 줄여 생산성을 높이고 물류비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

변호연 이사는 “정해진 용기에 유동성 분체의 공기를 제거하여 충전하면 포장용적이 줄어 포장비, 물류비가 절감될수 있다”며 “소재의 개발이 필요함을 느끼고 분체충전 탈기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후 세진테크(주)는 2002년 12월 개발에 착수,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6개 시제품을 판매 호평을 받고 있다.

변호연 이사가 개발한 고밀도 분체충전탈기 장치는 분체충전

기에 vacuum copactor를 도입하여 포장의 소형화, 수량감소 등에 의한 수송 물류비를 절약하고 포장의 자동화와 인원감소에 의한 분체 포장작업의 효율화를 꾀했다. 뿐만 아니라 분말의 분진감소로 인한 작업환경을 개선해 단시간에 연속적 탈기가 가능하고 수리가 쉬우며 장시간 운전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필터(filter) 고장율이 낮으며 고밀도로 제어하기가 용이하고 분체특성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20 μ m 미만의 미세분말의 충전이 가능하다.

변호연 이사는 “vacuum copactor는 탈기충전에서 계량까지 전자동이 가능하고 소포장의 탈기충진 및 플레콘의 탈기 충전, 소포장과 플레콘의 자동화, 소성작업의 효율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제품을 설명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고밀도 분체충전 탈기장치(오가탈기)는 막대한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현재 태국과 수출상담 중에 있다.

향후 해외수출이 계속 신장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을 비롯한 미국, 아시아 시장에서 연간 70만\$의 수출 예상과 국내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그는 손을 거치지 않은 세진테크(주) 기계가 없을 정도로 변호연 이사는 기계 개발에 남다른 열의와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속, 고정도 계량기, 쌀 연속식 진공포장기 등 현재 13년간 산학연 5건, 자체 개발 7건 등 총 16종류의 계량 포장분야를 개발, 발명특허를 비롯 5건의 실용신안특허출원을 하고 2000년 7월 ISO 9001 인증 및 2001

년도 중기청 INNO BIZ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세진테크가 기술선진화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주역에 변호연 이사, 그가 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들도 싫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매진해 왔다”는 변호연 이사. 산업용 계량기 제작당시에는 1년에 200일 이상 출장을 다니며 업무에 매진했다는 변 이사는 휴일과 퇴근 후등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계개발에 대한 투지와 노력을 펼친다. 기계를 만지고 개발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성실함과 근면성이 오늘날 세진테크(주)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

“무분별한 기계의 카피(copy)는 궁극적으로 국내 포장기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출물량에서도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하는 변호연 이사는 “포장기계업에 종사하는 후배들이 창의력과 자부심을 갖고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가 배고플때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지, 배부른 이후 도와주는 건, 진정한 도움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늘 남을 위해 살고 싶다는 변호연 이사.

“남을 위해 일평생 사신 아버지와 정직과 겸소함을 모토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신 큰형님을 가장 존경하고 그들 삶의 모습을 반이라도 좇는 것이 일생의 목표”라고 전하는 변호연 이사, 기계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묵묵히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가 포장업계 진정한 장인이다. [K]

박초혜 기자